

◇흉부교감신경차단술 전후 심혈관 및 폐기능의 평가

문석환, 김용환, 조건현, 왕영필, 곽문섭, 김세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_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은 최근 흉강경의 술기의 발달로 그 적응증이 다한증, 협심증, 안면홍조증, 레이노드증후군, 심부정맥 등에서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흉부교감신경이 심혈관, 폐등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미주신경과 더불어 중요한 자율신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흉부교감신경절제술에 따른 각종 생리 반응을 검토하고자하였다.

방법 : _ 저자들은 1995년 12월부터 1998년 8월까지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한 48례 [단순다한증 45례, 천식동반한 안면다한증 1례, 심방세동을 동반한 수족다한증 1례, 폐암을 동반한 협심증 1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율신경기능검사 [N=7], 심전도검사 [N=28], 심박동수변이를 위한 24시간 홀터검사[N=13], 운동부하검사 [N=7], 폐기능검사 및 methacholine 유발검사 [N=12] 등을 수술전후로 시행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 : _ 1] 평균연령은 28 -12세이며, 남녀비는 27: 21로 남자에서 약간 많았다. 2]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기흉과 관련된 합병증이 7례 있었다. 3]심전도검사상 [N=22] 분당심박동수가 술전 평균 71.7 - 10.3에서 술후 63.3 -8.76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R간격, QRS기간,QTc기간 등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폐기능검사 및 methacholine 유발검사 [N=12] 상 FVC, FEV1, FEF25-75% 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methacholine 유발검사상 술전에 4례에서 양성이었으며, 이중 3례에서 술후 검사를 하여 PC20가 평균 5.7 -4.39에서 7.92 -7.3으로 증가를 보였다. 5] 운동부하검사 [N=9] 에서 술전 1례에서만 양성[leg pain]이었으며, 술후 검사에서도 양성이었으나 심박동수는 술전에 비해 120에서 135까지 도달하였다[THR=157]. 6] 24시간 홀터검사를 이용하여 심박동수변이는 술전후차이는 없었다. 7] 자율신경기능검사[자세에따른 혈압및 박동수검사]에서 수술전후 차이는 없었다.

결론 : _ 따라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은 정상인에서 심각한 심폐기능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으며, 심박동수의 감소가 관찰되는 등 안전한 술식으로 인정되거나 심폐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수술전후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임저자:문석환(가톨릭의대) 발표자:문석환(가톨릭의대)